

9월 세번째 주 그룹큐티나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역대하 1:1-17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성도여 다 함께(찬송 29장, 구 29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기독교 신앙에는 개인적인 면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기 삶을 결단해야 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마 6:6).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수많은 공적 규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는 가르침이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솔로몬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1-6절).

- 1)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갈 때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2-3절)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 곧 ‘온 회중’ 솔로몬은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혼자 가지 않는다. 그는 천부장들, 백부장들과 같은 군인을 비롯하여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을 향해 간다. 이러한 묘사는 병행되는 열왕기상 3:4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차이가 느껴진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있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역대기는 주목한다.

- 2)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 시절만 해도(삼상 1:3)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 하지만 사울왕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 성막의 행방은 묘연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가 이곳에 성막, 즉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비록 언약궤는 다윗성(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성막이었다. 특히 놋제단은 모세 당시에 브살렐이 만든 유서 깊은 것이다(출 38:1-7). 이 놋제단에서 천 마리의 제물을 제사 지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역대기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서 깊은 성막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나눔 1 역대기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가 혼자 드린 제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린 제사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 드리는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누린 특별한 은혜를 나눠 봅시다.

2.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7-17절).

- 1)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하나님이 주신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인도하기) 위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솔로몬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백성’이다.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낼 때부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솔로몬이 존재하는 듯하다.

2) 하나님은 솔로몬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11절)

부, 재물, 영광, 원수의 멸망, 장수 등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이익을 구하지 않았던 점을 인상 깊게 여기셨다. 혹여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이익을 구했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 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가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 솔로몬에게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더욱 생각하는 마음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주셨다.

3)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어떤 번영을 누립니까?(15절)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아졌다.

역대기는 곧바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병력과 번영을 누렸는지를 소개해 준다. 이런 배열이 열왕기와는 다르다는 점에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 그리고 영광을 이 단락에서 보여 준다. 돌같이 흔한 은과 금, 널려 있는 뽕나무 같은 귀한 백향목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결과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보셨다. 따라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줄 때 그가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라 여기셨을 것이다. 따라서 군대의 위용과 막대한 재물은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곧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된다.

나눔 2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 부와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자기만족보다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 수많은 병거와 마병, 은금과 백향목, 말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안전과 풍요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필요까지 채우신 경험, 혹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경험을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몇 사람의 예배가 아닌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